

말을 수 있길, 모든 것을 다 듣는 청각이 되어 우리 새들의 연주회를 들을 수 있길, 모든 것을 다 느끼는 마음이 되어 이러한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랐지. 이제 지상의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오는 아름다움의 원천에서, 내 영혼은 그 전까지 미약한 감각 기관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던 것을 직접 보고, 맛보고, 듣고, 만지곤 해. 아아! 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영원의 동쪽에 있는 이 해안을 어떤 언어로 묘사할 수 있을까? 불행한 존재를 위로하시기 위해 무한한 권능과 천상의 신의가 창조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, 똑같은 천복을 누리는 무수히 많은 존재의 우정이 공통된 열광 속에 화합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, 우리는 순수하게 느끼고 있어. 그러니 오빠에게 주어진 시련을 견디도록 해. 결코 끝나지 않을 사랑으로, 결코 그 불길이 사그라들 수 없을 연(緣)으로, 오빠의 비르지니가 누릴 행복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야. 여기 오면 내가 오빠의 회한을 달래줄게. 여기 오면 내가 오빠 너의 눈물을 닦아줄게. 내 사랑! 어린 내 남편! 무한을 향해 영혼을 드높여, 순간의 아픔일랑 이거 내주길.”

나는 나 스스로의 감정에 못 이겨 그만 연설에 종지부를 찍었다네. 폴은 그 나름대로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, 이렇게 소리쳤어.

“그녀는 이제 없어요! 그녀는 이제 없다고요!”

그 고통스러운 말을 한 뒤에는 긴 시간 기절해 있었지.